

재생에너지

국내 기후에너지환경부, 미국 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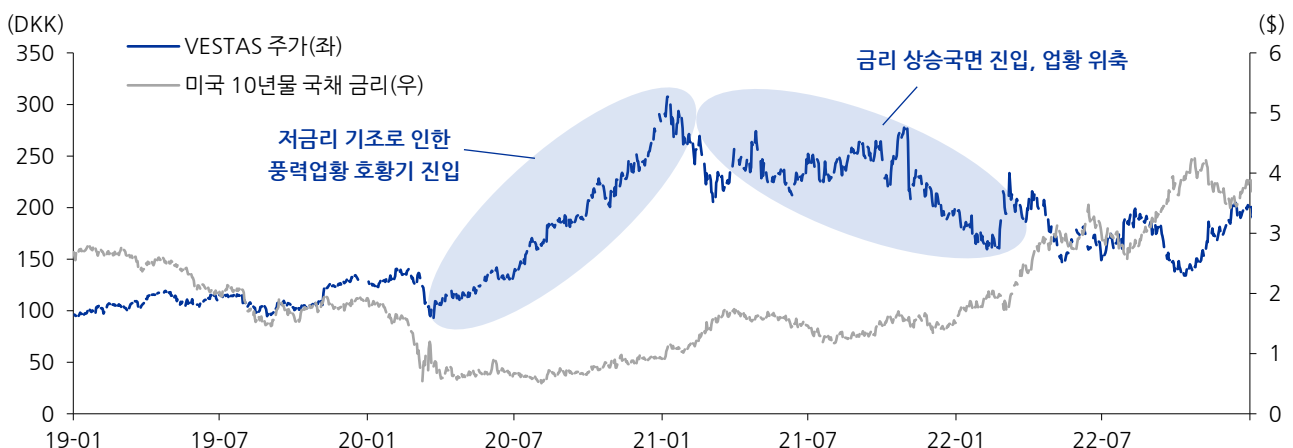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투자 포인트

국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재생에너지 연간 시장이 현재 3GW에서 7~10GW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도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긍정적. 트럼프 리스크로 위축된 관련주의 투자 매력도 바닥 탈출 가능성

ESG/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국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시화. 정책 중심이 전통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역사적 모멘텀
- 탄소배출 감축 규제의 틀을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을 동시에 집행하는 조직
-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중국의 그린산업 전체, 미국의 재생에너지 등 성공한 그린산업 뒤에는 규제와 육성 동반
- 전담 부처 확정되면 국내 재생에너지 연간 설치량 현재 약 3GW 수준에서 7~10GW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 예상
- 미국 9월 금리 인하 재개될 가능성 높아져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트럼프 1기인 2019년 글로벌 풍력, 태양광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시작된 촉매제는 정책 금리의 인하
- OBBBA로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 또는 2027년말까지 단지 건설 완공 수요 크게 증가하는 국면과 금리 인하 사이클 겹치면 대규모 태양광, 육상 풍력 확대에 긍정적
- 재생에너지 관련주 전반 투자 심리 개선될 것. 주 원인은 1) 국내 전담 부처 설립으로 정책 모멘텀 시작 2)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3) 중국의 그린산업 전반에 대한 공급 과잉 축소 정책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

2019~2022 년의 VESTAS 주가와 금리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 설정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에 일부 에너지 기능을 남겨 둘 수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통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이다. 탄소 감축을 위한 산업별 규제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산업 전반의 육성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와 육성을 통한 그린산업의 성장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중국의 그린산업 전반, 미국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스마트한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의 동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그린산업 성장의 표준이 된 지 오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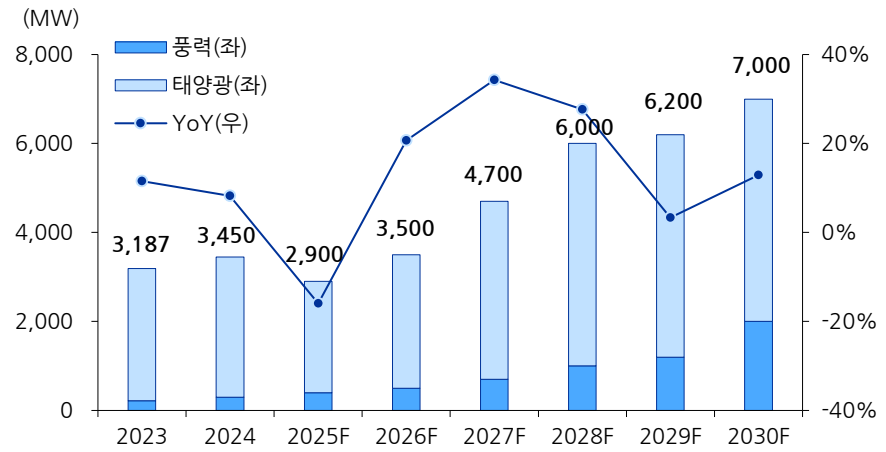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재생에너지에 중요

금리는 대규모 풍력, 태양광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1 기 때인 2019 년부터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한 이유는 정책 금리의 하락과 연관이 크다. 올 9 월부터 FED 의 정책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기 착공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IRA 의 수정 최종안인 OBBBA 는 유틸리티 스케일의 풍력, 태양광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6 년 7 월 4 일까지 실제 착공에 돌입하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또는 2027 년말까지 완공해서 전력을 공급하면 보조금을 수령한다.

재생에너지 관련주 투자
심리 바닥 탈출 예상

트럼프의 부정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트럼프 1 기 때도 동일했다. 하지만, 2019 년 정책 금리 인하와 더불어 시작된 재생에너지 관련주의 리레이팅은 강렬했다. 그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 데드라인을 앞두고 설치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장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현재 연간 약 3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7GW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 년내에 연간 10GW 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장에 공급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수혜는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가 된다.

도표 1. 국내 풍력, 태양광 설치량 전망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6.30 기준)